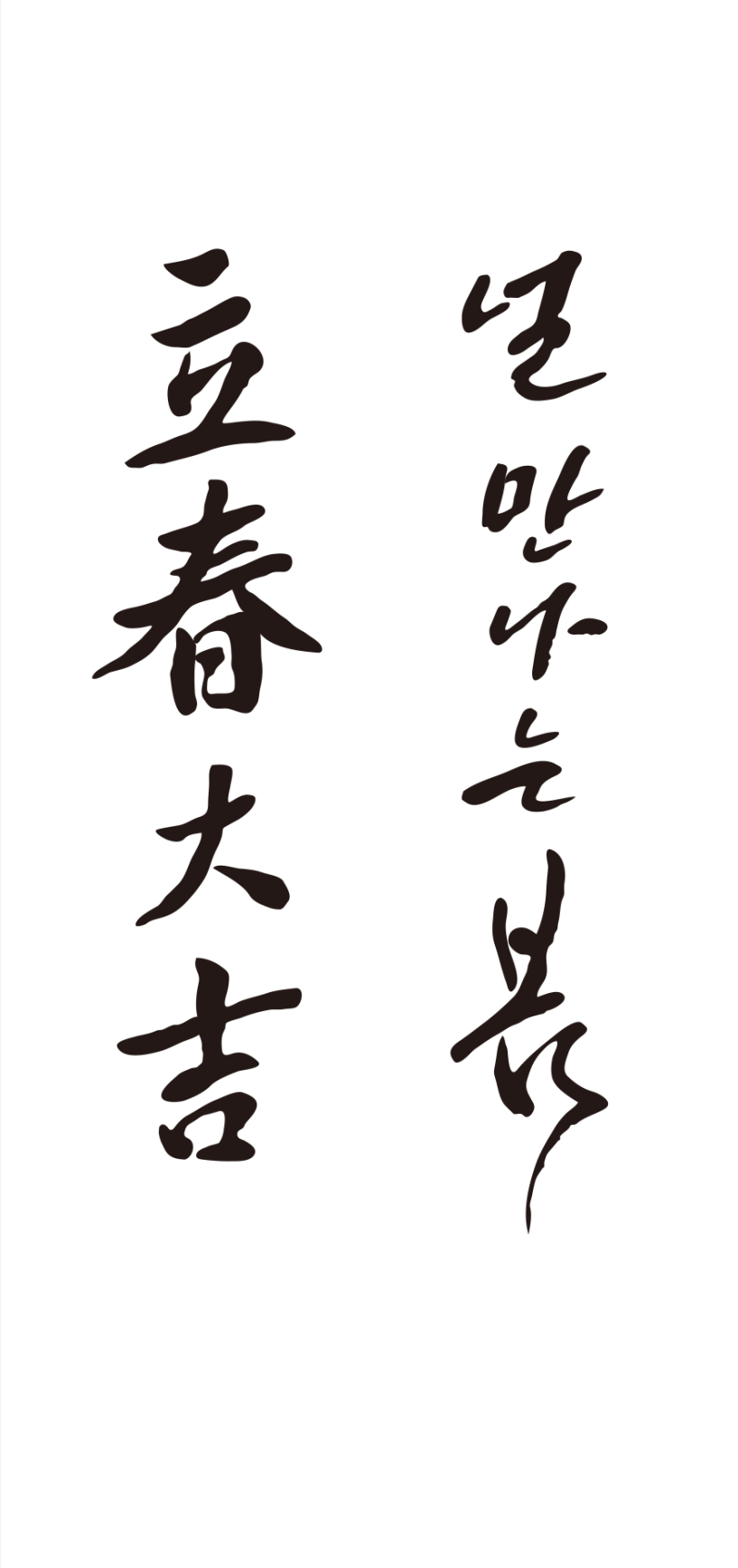

입춘첩을 나눠 드립니다

안녕 새로운 봄

2019. 2. 1.(금) – 2. 3. (일) 성호기념관

안녕, 새로운 봄. 입춘(入春)

성호기념관에서는 입춘첩과 함께 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.

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크게 길하라는 의미를 담은 **'입춘대길'** 그리고 기념관과 시민들이 만나 봄처럼 성장하길 기대하며 적은 **'널 만나는 봄'** 입춘첩을 나눠 드립니다. (1가족 당 1개, 소진 시 마감)

◎ 입춘이란?
정월의 첫 번째 절기이며 봄을 처음으로 알리는 날이기에 신년으로 여깁니다.

◎ 입춘첩이란?
24절기 중 봄이 시작되는 날인 입춘날, 묵은 해의 액을 멀리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대문이나 들보 기둥 천장에 붙이는 글귀입니다.

*** 개인 SNS 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트위터 등)에**

<#성호기념관 #입춘첩>을 태그하여 입춘첩 인증샷을 올려주시고

성호기념관에 재방문해주시면 '성호기념관 바인더'를 드립니다.

(소진 시 마감)

성호기념관